

젊은이(청년 · 청소년) 예배의 오늘과 내일?



일시 : 2012년 11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감리회본부 16층 본부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2 감리교 청년·청소년 예배포럼

<초대의 글>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청년과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지 고민하고, 보다 부흥된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젊은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개발하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현재는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열린예배를 변형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공동체로 모이도록 젊은이교회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젊은이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열린예배는 미국에서 불신자들이 심적 부담 없이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고안한 구도자예배에서 유래가 되었다. 이러한 구도자예배가 한국으로 와서 열린예배로 정착한 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열린예배는 전통적 예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전서에 따른 고정적 형식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예배 순서를 따른다. 그리고 예배의 축제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회중의 참여를 독려하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다. 그리고 예배에서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의 관련성을 예배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훌륭한 사운드와 찬양대가 인도하는 찬양중심의 열린예배를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훈련하며 활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린예배는 지나친 대중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칫 발산적 열광주의의 신앙으로 연결되어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와 배타적이며 소모적인 공동체를 촉진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시적 감흥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젊은이예배를 보다 정교하게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젊은이 예배가 기독교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전통적인 예배관습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교회가 속한 그 시대와 문화 및 상황에 맞는 예배의 옷을 입고 예배의 효율을 기하는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는 것은 젊은이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국에서는 오늘의 젊은이예배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감리교회 젊은이예배가 무엇인지를 감리교회 예배학자들을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년·청소년예배포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 일시: 2012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30분-오후4시 30분
- * 장소: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본부교회)
- * 주제: 젊은이(청년·청소년)예배의 오늘과 내일?
- * 강사: 나형석 교수, 박해정 교수, 전창희 교수, 김영석 목사, 이은경 박사.
- * 대상: 목사, 전도사, 교육담당자.
- * 등록비: 3만원
- * 주최 및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 * 문의 및 안내: 교육국 차세대교육정책부 부장 정현범 목사 399-4371
서기 임기선 399-4367
- * 등록안내:
 - 1) 등록비는 1인 3만원이며 교재와 점심 및 간식이 제공됩니다.
 - 2) 등록카드를 등록비(3만원)와 함께 등록처에 내주시고 교재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3)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선착순으로 50명만을 받습니다. 반드시 사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 4) 주차는 1시간만 무료이며 이후시간은 개인 부담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표>

시 간	강 의	비고
10:30-11:00	등록 및 접수	
11:00-11:30	개회예배(젊은이예배의 실험적 예배 모형)	감신 예배학회
11:30-12:00	오늘의 젊은이 예배 사례 발표	열린, 전통, 예전
12:00-13:00	점심식사	
13:00-13:50	발제1 웨슬리 관점에서 감리교 청년예배에 대한 조언 (전창희 교수)	발제, Q&A
13:50-14:40	발제2 서구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젊은이 예배의 방향성 (박해정 교수)	발제, Q&A
14:40-15:00	Tea Time	
15:00-15:50	발제3 목회적 관점에서의 젊은이 예배 평가 (나형석 교수)	발제, Q&A
15:50-16:20	전체 토의	Q&A

목 차

- ◎ 열린예배를 넘어 영적 성숙을 향한 청년예배 _김영석 목사 p.1
- ◎ 감각과 상징을 통한 총체적 신앙교육과 청소년예배 _이은경 박사 p.6
- ◎ 웨슬리 관점에서 감리교 청년예배에 대한 조언 _전창희 교수 p.7
- ◎ 서구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젊은이 예배의 방향성 _박해정 교수 p.26
- ◎ 목회적 관점에서의 젊은이 예배 평가 _나형석 교수 p.36

<젊은이 예배 사례1>

열린예배를 넘어 영적 성숙을 향한 청년예배 _ 김영석 목사 (종교교회)

종교교회 청년부는 현재 평균 350명이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주일 오후 3시에 900석 규모의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으며 총 예배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이다. 회중의 연령대는 20대가 65%, 30대가 35% 정도를 차지한다. 2006년 60명 정도가 모이던 공동체가 6년 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급속한 성장은 없었지만 성장이 멈추지 않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꾸준히 새가족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드리고 정착하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 예배 형식에 대하여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는 이미 현대적인 전통이 되어버린 젊은이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예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현대예배의 특징이라고 하면 단순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인도자가 나와 30-40분간 찬양을 하고 바로 설교자가 나와 30-40분간 설교를 하고 축도로 마친다. 전통예배가 갖고 있는 복잡한 순서와 구조를 모두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예배의 장점은 회중의 몰입도와 주제의 일관성이 살아남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예배가 회중과의 소통을 잃어버렸다면 현대예배는 회중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예배는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예배의 형식과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와 공동체적인 참여의 기능이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예배의 개인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동체적 의미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찬양하는 시간에도 예배자는 공동체 속에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예배여야 한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적 예배의 형태는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 성도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다. 교회는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의 장점을 균형 있게 재

배치한 형식을 갖고 있다. 신구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두 예배형태의 어설픈 공생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전통이 형성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그 형식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전통이든 그것이 형성될 때는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재해석되고 새롭게 적용되어 온 것이다. 그 예배전통의 근간과 목적을 버리고 단지 현시대가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큼 유치한 적용도 없다.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전통적인 예배요소(T)와 현대적인 예배요소(C)로 나누어 보았다.

예배 전 중보기도	(10분)	T
입례송	(1분)	T
사도신경	(1분)	T
회중찬양	(15분)	C
통성기도	(3분)	C
성경봉독	(5분)	T
찬양대 합창	(5분)	T
설교	(30분)	TC
봉헌	(5분)	TC
광고	(5분)	C
교제	(3분)	C
파송찬양	(3분)	C
축도	(1분)	T
후주	(1분)	T

예배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 회중이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구조와 형식 또한 이것을 목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의지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접근>이 없는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균형>이 중요하다. 거룩에 사로잡혀야 하는 시간을 잡념과 불만에 빠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일이다. 단지 적절한 흥분과 자극을 주는 완성도 높은 콘서트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다. 자극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깊은 묵상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회중에게서 영원히 박탈해 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언젠가 반드시 장년부로 넘어가게 된다. 청년부는 현대예배를 장년부는 전통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청년들이 평생토록 신앙을 이어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 그들이 전통예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예배의 형식과 구조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형식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의미를 담는다. 그것의 의미를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청년부 예배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2. 찬양에 대하여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의 찬양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찬양단과 찬양대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예배가 전통적인 찬양대를 버리고 찬양단 위주의 현대적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는 두 음악이 공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찬양단은 20명, 찬양대는 50명이 봉사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청년예배는 2008년도부터 찬양대와 찬양단이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 찬양단이 주는 문화적 공감도 필요하지만 찬양대를 통해 하모니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찬양단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로 서로를 돕는 찬양대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헌신과 섬김을 닮았다. 이 사실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젊은이들은 현대음악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예배에서는 반드시 현대적인 음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음악은 단지 소리를 넘어 그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음악이 갖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음악과 전통적인 예배음악의 차이가 있다면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예배음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대음악은 다소 자극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음악으로 부르는 노래는 찬양단의 반주에 동화되지만 전통적인 예배음악으로 부르는 찬양대의 노래는 서로의 목소리에 맞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두 음악 모두가 필요하다. 찬양대만을 강조한다면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음악적 언어를 무시하고서는 그들과 소통하는 일은 소원해 질 것이다. 반대로 찬양단만을 강조한다면 자신의 목소리에 마음을 담아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신앙적 의미를 그들은 점차 잃어가고 말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중 하나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형식과 구조를 잡을 때 현대음악은 집중적으로 15분간 찬양을 하는 것으로 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30-40분간 찬양하는 것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직접 예배에 참석해 본다면 모자라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예배음악은 예배전체에 고루 배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전통의 근간을 지키면서 청년들의 음악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3. 설교에 대하여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단지 마음을 쏟아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부활을 기뻐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 부활을 기쁘게 해주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장하기보다 설득한 것이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닐 때 부활절은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날이었다. 계란을 먹으니까 기뻐해야 날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절은 기뻐해야 하는 날일 뿐 실제로 기쁜 날이 되지 못해가는 것을 느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득적으로 설명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지 못한 불행이라 생각한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염두에 두는 기준이 있다. 설득적으로, 공감을 얻어가며, 뜨겁게 전하는 것이다. 지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감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경험된 이야기를 찾고 목회자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설교를 준비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의미를 보여주는 일에 열심을 낸다. 강요하기보다 초청한다. 어설픈 것을 강제로 요구하기보다 매력적인 것을 스스로 붙잡게 도와주는 것이 설교자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은 의무를 듣기보다 의미를 발견하기 원한다. 지금까지 교회가 의무를 강조하며 청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의미를 강조하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4. 예배의 강점에 대하여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의 강점은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클래식 성가와 현대적 찬양의 균형, 진지함과 유쾌함의 공존이 다양한 개성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뜨거운 감성으로 힘 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동시에 차분하고 정돈된 합창을 부르는 모습을 가졌다. 유쾌한 청년의 문화를 입고 있지만 진지한 성경의 해석을 즐거워한다. 한 쪽으로 치우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하겠다.

교회에 정착하는 새가족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정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무언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장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청년들의 모습, 그 표정을 발견한 것이다. 새가족들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피기보다 예배하는 기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다시 말해 새가족은 예배에 관심이 있기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위한 예배는 그들에게 맞춰진 예배라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이다. 종교교회 청년부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무엇이 성장의 원인인지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거부감이 아니라 매력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교제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가 주는 매력, 의무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케 하는 분위기, 규모보다 건강에 힘쓰는 노력이 그들에게도 느껴진 것이다.

5. 예배의 개선점에 대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몸집이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힘이 세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다. 병들지 않아야 한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 예배인가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예배하는가가 더 높은 가치다. 더 완벽한 예배를 위해 무언가를 개선하기보다 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는 것이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는다.

<젊은이 예배 사례2>

감각과 상징을 통한 총체적 신앙교육과 청소년예배 _ 이은경 박사 (대신교회)

1. 대신교회 청소년예배 특징

- 상징교육
- 감각교육
- 전인교육
- 총체적 교육

2. 예배 모형 : 창립기념주일

● 예배순서

- ① 시작하는 놀이
- ② 여는 말
- ③ 교회 만들기
- ④ 찬양
- ⑤ 교회 채우기
- ⑥ 양초, 성경책 놓기
- ⑦ 성경 읽기 : 시편 122, 1-2; 6-9
- ⑧ 교회의 역할 4가지
- ⑨ 색끈 나누기 - 나의 역할
- ⑩ 마치는 이야기
- ⑪ 마치는 찬양 :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 ⑫ 주기도문

발제1 웨슬리 관점에서 감리교 청년예배에 대한 조언



- **전창희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Drew University(Ph.D. Liturgical Studies). 협성대학교 교수(예배와 설교학). 감리교 신앙과 직제 위원회 위원.

I. 들어가는 말

예배를 진단하고 적절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분명 오늘날의 예배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고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연 왜 우리는 예배를 진단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빨라도 너무 빠르다. 세상의 변화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관계가 있을까?

분명 교회는 사회나 문화와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수도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배의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 예배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 사람들의 사회와 그들이 가진 문화와 교통하며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찬송가의 운율도 천국의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좀 더 분명하게는, 초대교회의 예배와 오늘날 한국에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뚜렷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배사적으로 ‘예배의 참여’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만큼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요청으로부터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는 찬송가의 사용 같은 부분에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예배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예배의 새로움과 감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배자들과 예배 사역자들은 현대 사회와 문화의 빠른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예배는 분명 발전해 왔지만 그 변화와 발전은 좀 더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사회와 문화와 교류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배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두 번째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사회, 문화적인 도구를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가는 사실상 ‘예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잊어버리는 오류를 만들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실제로 이러한 역사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왔다.

사실 어떤 예배도 완벽한 형태의 예배는 없다. 가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긴다. 우리에게 예배의 형태와 신학을 아주 완벽한 형태의 초등학교 ‘전과’처럼 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어떤 정답 같은 ‘그’ 예배만 아주 잘 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교단과 예배 전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전과’를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완벽한 예배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II. 현대의 청년예배

오늘날의 청년예배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을까? 사실 그는 청년예배의 미래를 예측했다거나 혹은 그 당시에 특별히 청년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과 실천은 오늘날 청년예배에 대한 충분한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웨슬리의 ‘가상의 조언’을 듣기 전에 오늘날의 청년예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늘날 청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중의 하나는 분명히 ‘문화’라는 주제일 것이다. 사실 최근 몇 십 년 동안 청년예배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선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예배와 문화의 결합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접목하고 정제된 예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대개의 경우 그 시작은 청년예배이곤 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제는 더 성장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문화가 예배에 접목되는 데 있어서 그 이전만큼 저항에 부딪치거나 어색해하지는 않게 되었다. 현재에도 새로운 예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목회자는 청년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예배의 여러 모습들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찬양 같은 요소를 예배 주변에서 예배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로는 분명하다. 기존의 준비찬양의 개념에서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격상시킨 데는 이러한 예배가 소개되고 발전한 청년예배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의 이러한 청년예배의 변화가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과장일까?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예배의 거룩성을 지킨다는 생각은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희석되었고, ‘변화’라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예배학을 하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 어쩌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오늘의 현장과 현상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 문화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발전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문화’라는 고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성육신’ 사건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어떤 때는 불기둥으로, 어떤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성을 나타내는데 ‘성스러운 어떤 것’만을 우리에게 내미시거나 요구하시지는 않으셨다. 어쩌면 문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은 문화 속에도 충분히 임재하실 수 있고 우리도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 예배학자들이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예배란 무엇일까? 루터교 신학자 피터 부르너(Peter Brunner)는 예배에 대해 ‘Gottesdien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God’s service (to us) and our service to God’이다.¹⁾ 말하자면 예배 속에는 분명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창세기 4장에는 기독교 예배의 첫 시작으로 알려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후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다.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들은 각자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결국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동안 많은 합당한 대답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문제, 둘째에게 전해지는 구속의 의미, 피의 제사에 대한 정당성, 예배드리기 전 죄 문제의 미해결, 소위 주일학교에서 설교되어지곤 하는 ‘정성 없게 드림’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 해석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가 하는 것은 이글의 목적이 아니다.

예배학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데 대해서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다.(창4:5) 이것은 어쩌면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예물은 받지 않으신데 대해서 당황했다는 것을 조금 엿보여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돌려 말하면 가인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리라는 믿음 혹은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그가 과연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라는 생각을 했겠는가? 소위 주일학교에서 가인은 믿음 없이 정성스럽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설교되곤 하는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성 없이 무언가를 줬다고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분해도 너무 분한’(‘심히’/4:5) 상태가 될 것인가? 가인이 분한 것은 아벨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다고 해도 질투의 본질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다른 이면이기도 하다.

다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의 생각 속에 예배드리는 주체는 아벨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선한 주인공이 아벨이기 때문

1) James White,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25.

이다. 그러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주체는 가인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양의 첫 새끼는 계절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생산될 수 있지만, 양이 새끼를 출산하는데 꼭 어떤 계절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땅의 소산을 추수하는 데는 시기가 필요하다. 둘이 같이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가인의 시기에 맞추어서 드려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해석적인 결과들에 대한 정당성을 뒤로하더라도,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야 한다는 섭섭함과 질투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제물을 받으시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도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부분만 증언하며 가인의 제물이 열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하는 일 중의 하나는 학생들과 ‘예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표현을 찾는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이 모아지는 표현은 ‘예배를 드린다’이다. ‘예배(禮拜)’라는 용어 자체가 내포하는 뜻도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누구에게 무언가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드려지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할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어야 할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경우들을 접하곤 한다. 어떤 여름인가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랜드캐년에 갔다. 아이들의 반응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랜드캐년의 장엄함보다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없는 시간도 내고 없는 돈도 사용한 건데 너무 껄뻘했다. 소위 ‘분해도 너무 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혼낸 기억이 있다. 예배가 상호작용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 ‘성례전’이란 용어도 인간의 노력에 의한 댓가라기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된다.²⁾

문화는 예배의 요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곤 한다. 그것은 문화와 전통의 대립이라기 보다 각자 선호하는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특히 찬양 인도자들은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일어나 걸어라’를 부르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할 것이다. 특히 예배의 다양성이 없는 중소형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바꿔본다.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라’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좋아하실까? 바로 이것이다. 문화는 허락된 것이지만 문화가 만족시키는 대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2) 제임스 화이트 지음, 김운용 옮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문화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사역자들의 고민과 기도가 더 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우리는 예배 문화와 예배의 본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며 문화와 본질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한 가지 염려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성장)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성공주의의 ‘덧’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성공’이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970-80년대 로버트 솔러 목사의 수정교회는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왜? 그의 신학이 뛰어나기 때문? 혹은 그의 사역들이 시대에 잘 부응하였기 때문? 그럴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수정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의 모델로 삼았던 이면에는 로버트 솔러 목사와 수정교회의 ‘성공’에 있었다. ‘성공’했기 때문에 로버트 솔러 목사의 목회 철학, 신학, 실천이 건강하고 뛰어났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2012년 5월, 가장 최근 열렸던 한국 설교학회의 주제가 ‘변영신학과 기독교 설교’였다. 이 학회의 대부분의 발표는 그동안 한국 설교가 가져왔던 변영신학에 대한 자성과 개혁의 의지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의 한국교회 주요 성장 동력중의 하나였던 ‘변영신학’ 즉 ‘성공(성장)제일주의’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성장에 대해서도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를 양산해 왔다는 다는 지적이다.³⁾

성공주의의 가장 큰 덧은 결과가 과정이나 내용을 합리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청년부가 부흥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건강한 실천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곤 한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한(혹은 청년부가 부흥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 예배를 살핀다. 이것은 성장한 교회들이나 혹은 교회들의 성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피상적인 것들을 생산해내는 어떤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는 염려이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연 예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여기 즉 성공주의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배를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어떤 건강한 판단의 도구와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것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일단 방향을 정하면 천천히 가더라도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수정교회가 가지고 있던 변영신학의 오류들은 수십 년을 지나 오늘날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또다시 결과에 의해 그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에 실패했다고 해서 선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듯 교회가 성장한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판단은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수정교회에 대한 우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정교회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오히려 흠여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확장된 그러한 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실패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

3) 한국 설교학회 제15차 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변영신학과 기독교 설교 자료집』 참조.

은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더 적당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어떤 교회 예배의 성장이나 성공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 외에 다른 더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문화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서 예배 안에서 분명히 문화와 본질간의 균형을 이루고 방향을 세울만한 유익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다. 그중에 하나는 분명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조언이다.

III. 웨슬리 예배의 특징 - 예배에 대한 비당파적으로 접근

웨슬리는 감리교만의 유산일까? 어떤 면에서 가장 당파적이지 않은 것이 감리교 예배의 특성이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예배에 대한 당파적 특성은 약하게 나타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덜 당파적인 예배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감리교 학자인 제임스 화이트는 웨슬리의 시대에 도래했던 ‘신앙에 있어서의 과도한 평화’였다. 화이트는 이것을 그 당시 영국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과도한 평화가 신앙에 있어서 ‘전반적인 무관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 인해 오히려 덜 당파적인 예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졌다고 화이트는 평가한다.⁴⁾

과도한 평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종교개혁의 시대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종교개혁의 논쟁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⁵⁾ 물론 종교 개혁 이후에 각 종파 간에 자리 잡았던 신학적 뿌리들은 건재해 있지만 과거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겨나는 차이 때문에 얼굴을 붉히거나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있어왔던 영국교회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투쟁도 마침내 종식되었다는 것이다.⁶⁾ 말하자면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앙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 삶의 주된 그리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화이트는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덜 당파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 예배의 도식 가운데서 감리교 예배 전통의 위치가 일목요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⁷⁾ 소위 예배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극우파와 극좌의 경향성을 수용하고 있다. 서울장신의 김세광 교수는 감리교 예배를 표현함에 있어서 ‘중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⁸⁾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표현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 ‘중도’라는 단어를 웨슬리의 예배적 관점과 연관에서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중도’라는 말이 단순히 ‘중간쯤에 있다’라는 말은 아니다. 종교개혁과의 시간적인 거리로 인해서 웨슬리는 종교개혁이 포기했던 중세기적인 경건과 예배관습의 일부

4) 제임스 화이트 지음, 김석한 옮김,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225.

5) Ibid.

6) Ibid.

7) Ibid., 256.

8) 2011년 가을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개최되었던 예배학회 주제발표 내용.

형태들을 재도입 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극우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로 돌아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희생을 암시하는 성찬식, 빈번한 성찬식, 철야기도, 금식의 거행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루터교 전통 중 모라비안(the Moravian)의 경건주의 모습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실제로 웨슬리의 앨더스게이트(Aldersgate)에서와 같은 뜨거운 체험은 그의 예배적 이해가 극좌적인 성향도 수용하도록 돕는다.⁹⁾

이러한 그의 경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 웨슬리는 어머니의 가게로부터 받은 초보수주의 청교도의 영향으로 청교도 예배 전략 중 많은 부분을 받아들리게 된다. 화이트는 웨슬리의 성찬 교리가 종교개혁자중 칼빈의 성찬 교리와 가장 가까울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¹⁰⁾ 그러나 웨슬리는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예정’에 대한 것은 거부하였다. 한편으로 웨슬레의 예배와 사역의 기반은 그가 사랑했던 성공회 전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웨슬리가 생각했던 성공회 예배의 가장 좋은 장점들은 바로 ‘확고하고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경건성’ 이었다.¹¹⁾ 그러나 그는 영혼들의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성공회의 관습을 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법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에 대해 감리교 예배의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덜 당파적인 접근은 다양한 예배전통에 대해서 포용적일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기도 하다. 또한 감리교가 웨슬리 이후 여러 예배전통과 대화하며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감리교 예배는 현재 오순절을 비롯한 50여개 이상의 교파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¹²⁾

웨슬리가 예배에 대해 고민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여러 예배 전통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사고가 경직되기 쉽다고들 말한다.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더 소중하게 되는 법이다. 추억이 소중하고, 가져왔던 전통들이 중요하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고 실행해 왔던 예배의 모습들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년예배는 이러한 수용에 있어서 좋은 주체들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이 좀 더 도전적이고 탐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권고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나서 좀 넓게 보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 전통들이 있다. 각자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은 사고나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그것만 옳다’라는 신념

9) 화이트는 기독교의 예배전통을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사용한다.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

	좌익	중도	우익	
16세기	재세례파	개혁파	성공회	루터교
17세기	퀘이커	청교도		
18세기		감리교		
19세기		변경파		
20세기	오순절파			

10) Ibid., 257.

11) Ibid.

12) Ibid.

에 사로잡힐 때 가장 고집 세고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웨슬리의 시대는 그런 신념에 사로잡힌 시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신념이 고착화된 시대이기는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웨슬리는 다양한 예배전통을 경험하고 수용하였다. 그의 이해나 실천이 후대에 넘겨준 ‘중도’라고 단어는 감리교인들이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만하다.

IV. 웨슬리가 제시하는 예배에 대한 기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중도’적인 수용이 무분별한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예배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배를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이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와 진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다. 오늘날 예배의 갱신에 대한 목소리는 부쩍 많아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갱신의 기준은 무엇일까?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없다’, ‘예배의 인원이 점점 줄고 있다’, ‘예배의 생동감이 없다’... 이런 등등의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1. 선교적 관심

첫 번째로, 선교는 웨슬리의 예배와 감리교 예배전통이 형성되게 된 중요한 기원이 되었다.¹³⁾ 웨슬리가 직면한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산업화의 문제였다. 이 산업화의 문제는 공업과 광업에 관계된 새로운 중심지들을 계속 만들어 냈고, 웨슬리는 그곳에 모인 다수의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에서 그들에게 목회적인 돌봄이나 전도의 기회를 제시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구제였다. 교구제란 교구는 교구를 맡은 성직자가 어떤 한 교구(지역)를 담당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모순은 산업화의 기회를 잡고자 타 지역으로 떠난 교구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오게 된 노동자들은 교구제도 하에서 이방인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그 당시 풍조가 권력과 명성에 큰 강조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인 풍조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했다. 이러한 풍조하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저층의 사람들은 관심이 대상이 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힌 웨슬리 운동은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교구제도를 어길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모순을 뛰어넘는 새로운 행태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만 했다.¹⁴⁾

13) 화이트, 258.

14) Leslie Church, *The Early Methodist People* (London: Epworth Press, 1948), 222-262.

“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어디로 보나 당연하고 올바른 일, 곧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축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실하고자 한다” 15)

새로운 형태의 선교는 주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목회적 요소로써 건강, 교육, 공적 복지에 대한 새로운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영국 국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만족할 만한 수단과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¹⁶⁾ 웨슬리 예배의 기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구체화 되었다.

우선 예배를 위한 장소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는 교구교회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드렸지만, 1739년 그는 스스로 비천해지기로 작정하고 군중을 만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¹⁷⁾ 물론 감리교 운동이 좀 더 발전한 이후에는 많은 성직자들의 반감으로 인해 교구 교회의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되기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그가 밭이나 담이나 문간이나 심지어는 무덤에서마저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였다.¹⁸⁾ 신학적으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또한 어느 장소에든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하여(On the Omnipresence of God)’에도 잘 내재되어 있다.¹⁹⁾

후에 이러한 옥외 집회 예배들은 다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예배당은 기존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웨슬리는 그의 선교의 목적에 따라 예배당의 형태를 규정하고 상용했는데, 그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예배당의 형태는 팔각형이었다.²⁰⁾ 그는 예배당의 웅장한 모습이나 아름답게 꾸며진 장식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팔각형을 선호한 것은 이 팔각형의 예배당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점과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설교자와 가깝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1756년 세워진 노르위치(Norwich)의 옥타곤 채플(the Octagon Chapel)은 아주 대표적인 웨슬리 스타일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감리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모범이 되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었다. 제도가 묶어놓은 배타성들이 웨슬리에게서는 거부되었고, 그런 배타성이 가져왔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었던 소외받고 가난한 대중과 만나는 일은 그의 예배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소외받고 가난했던

15) 『Wesley Letters I』, 286.

16)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1.

17) Ibid., 266-267.

18) Clyde E. Fant, Jr. and William M. Pinson,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An Encyclopedia of Preaching*, vol. 3 (Waco, Texas: Word Books, 1971), 6.

19) 1788년 8월 12일 포츠마우스에서 행한 설교. John Wesley,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vol. 2 (London: Fisher, Son, & Co., n.d.), 496-501.

20)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7.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웨슬리의 “선교 활동이 감리교 예배의 뚜렷한 형상을 부여했다”고 제임스 화이트는 평가한다.²¹⁾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제한을 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였으며, 개인적인 간증도 하고 즉석으로 기도하는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것들은 웨슬리 운동이 가지는 예배에 대한 ‘선교활동’과 ‘능동적 참여’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실용주의적 전통주의와 참여적 예배

웨슬리는 실제로 그동안 영국 국교회가 고수해 왔던 여러 가지 예배의 모양들에 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단지 상황의 변화에 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상황에 의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지라도, 그의 변화는 다분히 신학적이었다.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중요한 기반은 ‘실용주의적 전통주의(pragmatic traditionalism)’였다. 실용적 전통주의란 전통을 따르되 성서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유사한 상황들에서 행해졌던 예배의식들의 보편적 전통을 찾는 것이다.²³⁾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가져왔고 행해왔던 예배의 전통을 개혁하려거나 보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화이트가 지적한대로 웨슬리는 예배 전통에 있어서 아주 충실한 영국 국교회 교도였다. 하지는 그는 그 전통에서 묶여있지는 않았다.²⁴⁾ 웨슬리가 생각한 전통이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발전하고 개혁해 나가는 전통이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러한 자유를 성서와 초대교회로부터 찾았다. 말하자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예배적인 의식들을 행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도적, 성서적 근거가 정당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웨슬리의 신학적 발전은 어떤 다른 신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보다 신학의 순수한 원천인 성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사실 이러한 기준들은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성서에 대해서는 그가 1727년 문학 석사 학위를 받기 이전, 그가 공부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헬라어 강사로 발탁되어 헬라어를 가르치며 자신의 연구를 계속 쌓아 나갔다.²⁵⁾ 그는 누구보다도 성서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었을 뿐더러 그 연구의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루크 타이어맨이나 프레드릭 맥도날드 같은 앞선 시대들에서 웨슬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단언코 웨슬리를 ‘성서 신학자’라고 정의한다.

또한 웨슬리 자신은 교부학(patristics)에 정통한 학자로서, 초대 교회의 예배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있고 자세하게 보았다.²⁶⁾ 이러한 그의 입장은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예배의 요소를 개혁하면서 삼았던 기준과 일맥상통한 다는 점²⁷⁾에서 웨슬리의 실용적 전통주의는 종교개혁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재미있는 것은 웨슬리나 루

21) Ibid., 258.

22) Ibid., 261.

23) Ibid., 258.

24) Ibid.

25) Fant and Pinson,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An Encyclopedia of Preaching*, vol. 3, 4.

26) 화이트, 『개신교 예배』, 258.

27) James White,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15.

터 그리고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성서학자였고 또한 초대교회에 정통한 교부학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예배와는 조금 다르지만 웨슬리가 행했던 ‘거리 전도’는 이런 맥락에서 수용된 것이었다. 그 당시 성공회 전통에서 거리 전도는 수용된 행위가 아니었다. 웨슬리도 처음에는 거리 전도에 대해서 주저하였지만 곧 그는 거리 전도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거리 전도는 성서와 초대교회 사도전통이 충분히 증거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예배적 행위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애찬(the love feast)’과 ‘제야의 집회(the watch night)’²⁸⁾ 같은 예배의 요소들은 분명 그 당시 새로운 형식의 예배 행위였다. 애찬의 경우에는 이것이 고대의 아가페 식사(agape meal)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였다.²⁹⁾ 사실 애찬식은 성서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에서 시작하여 초기 초대교회 중요하게 행해졌던 행위였다. 이 애찬의 개념과 정신은 이후 사라지고 거룩한 희생의 성만찬 의식만 남겨졌고 오랫동안 기독교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 왔던 것이었다.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모라비안 교도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애찬을 계승하였고, 이것은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하다. 웨슬리의 애찬은 성찬식이 행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혹 행해지는 형태로 실행되었으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공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간주되었다.³⁰⁾ 특히 애찬의 시간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도 제공되었다.

제야(除夜)의 집회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중요하게 행해졌던 부활 전야의 모습을 재연하는 새로운 형태의 철야 기도회(vigils)였다.³¹⁾ 찬송의 사용에 있어서도 웨슬리는 성경의 증언과, 교부들의 전례, 그리고 루터교회 관습에 근거하여 정당화 하였다. 이 철야 집회는 주로 설교, 기도, 간증, 그리고 찬양으로 구성되었다.

웨슬리의 실용적 전통주의가 드러난 다른 예는 ‘언약갱신예배(the Covenant Renewal Service)’였다.³²⁾ 이 예배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행해지는 연례적인 행사로 드러났다. 이 예배는 영국 국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예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행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충분하였다. 성서적으로는 여호수아 24장 같은 선례들에서 웨슬리는 그 기원을 찾았고, 더 직접적으로는 17세기 장로교의 사람이었던 리처드 알레인(Richard Allein)과 조셉 알레인(Joseph Allein)이 사용한 예배에서 그 전통을 찾았다.³³⁾

찬송은 웨슬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의 하나였고 성서와 초대교회가 증거 하는 예배의 귀중한 유산이기도 했다. 제임스 화이트는 기독교 세계화에 대한 감리교의 공헌을 찬송으로부터 찾는다.³⁴⁾ 웨슬리 형제가 지은 찬송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음악적 요

28) John Bishop, *Methodist Worship in Relation to Free Church Worship* (London: Epworth Press, 1950), 92-94. 이 제야의 집회는 회중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개 달이 밝은 밤에 행해졌다.)

29)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4.

30) Frank Baker, *Methodism and the Love-Feast* (London: Epworth Press, 1957).

31) 화이트, 『개신교 예배』, 258.

32) David Tripp, *The Renewal of the Covenant in the Methodist Tradition* (London: Epworth Press, 1969), 12-15.

33) 이 예배는 1976년 이후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세례의 서원을 재확인하는 의식으로 약간 변화되었다.

소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찬송은 시로 지어진 신학 논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⁵⁾ 대부분의 찬송시들은 성서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래서 웨슬리 형제의 찬송은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가 되기도 한다.³⁶⁾ 웨슬리 형제의 찬송의 위대한 점은 첫째로 찬송가가 예배를 보조하거나 말씀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 말씀 자체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성서의 이야기와 언어 그리고 이미지들로부터 나왔고, 성서의 이야기들이 시적 언어로 바뀌어졌다. 예를 들면 가장 훌륭한 찬송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오리, 그대 알지 못하는 나그네여(Come, O Thou Traveler Unknown)”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브니엘의 야곱에 대한 시적 번역이다.³⁷⁾

웨슬리 형제의 찬송가에 담긴 신학적 특성으로 인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모임의 학습이 되었고 말씀이 되기도 했다. 웨슬리는 자신의 『찬송시 선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본질이나 성격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형태로 제시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의 요체라 할 수 있다.”³⁸⁾ 그래서 찬송을 통해 감리교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³⁹⁾ 웨슬리는 찬송시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 분류는 ‘믿음으로서의 초대’(신앙을 소개하는 찬송시)로 시작해서 ‘경건’(신앙 상태를 묘사한 찬송시), ‘통회자를 위하여’(여러 처지의 통회자를 위한 찬송시), ‘신앙인을 위하여’(여러 처지의 신앙인을 위한 찬송시), 그리고 ‘메도디스트 공동체’(집회를 위한 찬송시)로 마무리 된다.

웨슬리 형제 찬송가의 다른 위대한 점은 회중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그들의 찬송가는 교회 회중의 참여를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꾸는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능동적 참여에 대한 웨슬리의 믿음은 오히려 성가대를 세우는 것을 찬성하지 않도록 하였으나⁴⁰⁾, 모든 예배에 능동적인 참여로 인한 힘을 부여했다. 성만찬의 경우에 있어서도 성찬 기도 중에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수찬(the communion)중에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감리교 운동의 관례가 되었다.⁴¹⁾ 웨슬리는 성만찬을 위한 찬송집을 1745년 『성만찬 찬송』(Hymns on the Lord's Supper)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⁴²⁾ 웨슬리는 1780년에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위한 찬송시선집』⁴³⁾을 출판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1904년 새로운 형태의 『감리교 찬송집』으로 대체

34)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8.

35) Ibid., 269.

36) 실제로 찬송시들은 대부분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찬송시들의 용도, 내용구성, 시 선택, 편집 방식, 삭제와 첨가에 의해 독특한 영성과 기운을 부여해 책을 만든 사람은 존 웨슬리이다. 즉, 대부분의 찬송시들은 웨슬리의 신학적, 영적 실천적 권위에 의해 정리되고 사용되었다. 존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서울: KMC 출판국, 2010), 15

37)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9.

38) 웨슬리의 『웨슬리 찬송시선집』 초판 서문.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10.

39)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17.

40) 웨슬리에게 성가대는 회중의 공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수동적 청중으로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41) 나형석,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성찬 감사기도』 (서울: 좋은땅, 2012), 195.

42) 역자 서문 중에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지음, 나형석 옮김, 『웨슬리 형제의 성만찬 찬송』 (서울: KMC, 2004), 3.

43) 나형석 교수는 『A Collection of Hymns for the Use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를 단순히 『웨슬리 찬송시선집』이란 제목으로 번역했다. 거기에 대해 나형석 교수는 이 책이 특정 교파의 전유물이라기보

될 때까지 공식 회중 찬송가사로 애창되어 왔다.⁴⁴⁾

3. 문화의 수용과 반문화적 운동

제임스 화이트는 감리교 예배가 계몽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영국 사회에서 ‘반문화적인 운동’이었음을 지적한다.⁴⁵⁾ 그러나 웨슬리의 반문화는 단순히 문화를 반대하고 전통을 고수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다. 찬송가는 그가 예배에 있어서 문화를 얼마나 포용적으로 수용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웨슬리의 예배의식이 가진 ‘반문화적인 운동’의 방향성은 ‘예배 본질의 회복’과 ‘경건의 향상’이었다. 그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성적 사고에 근거하는 ‘기독교 합리주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웨슬리의 시대에 이르러는 기독교 합리주의가 더욱도 이신론(deism)의 방향으로 더욱 이동하는 때였다.⁴⁶⁾ 이신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사에 개입하는 신의 모습의 점점 더 희박해져 갔다는 것이다. 계몽주의나 합리주의는 예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예배의 목적이란 “인류의 계몽과 ‘위로’ 그리고 인간성 회복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축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종교적인 감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었다.”⁴⁷⁾ 또한 이러한 계몽주의적 목적은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종교교육’의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설교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시대인들에게 계몽주의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예배는 그 목표를 상실하고 끝내는 그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⁴⁸⁾

이러한 사상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이 성만찬에 관한 것이었다. 성만찬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신의 가시적인 개입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⁴⁹⁾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만찬의 중요성은 쇠퇴되었고 그 위치는 낮아졌다.⁵⁰⁾ 단지 성만찬뿐만 아니라 다른 성례적 요소를 가진 예배의 모습들은 점점 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변두리로 밀려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영국 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비국교회 모두에서 나타난 경향이었다.⁵¹⁾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 영국 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여기에 반해서, 웨슬리는 예배의 성례적 모습들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에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성례적인 사건은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 4-5일에 1번 정도로 성만찬을 거행하기도 하였다.⁵²⁾ 웨슬리는 ‘부단한 성찬식의 의무’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가능한 한 자주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선포한다.⁵³⁾ 그가 옥스퍼드 대학

다 여러 전통에 영향을 끼친 18세기 기독교 운동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13.

44)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5.

45) 화이트, 『개신교 예배』, 258.

46) Ibid., 181.

47) 빌리암 나야겔 지음, 박근원 옮김,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0.

48) Ibid., 190-191.

49) 화이트, 『하나님의 가시적인 사랑 성례전』.

50) 화이트, 『개신교 예배』, 181.

51) Ibid., 258.

52) John C. Bowmer.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n Early Methodism* (Dacre Press, 19651), 55.

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끈 ‘거룩한 모임’(Holy Club)은 “성례들과 일상 기도에 대한 규칙적인 방식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모임 밖의 사람들로부터 ‘규칙주의자(Methodists)’ 혹은 ‘성찬 형식론자들’(sacramentarians)라고 조롱받기도 하였다.

성찬식은 주님의 현재적 은총을 설명해 주는 표지⁵⁴⁾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 예배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화이트는 경건의 향상이 새롭게 등장한 감리교 전통이 확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⁵⁵⁾ 실제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향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는 “은혜의 수단”(The Means of Grace)⁵⁶⁾라는 설교에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제시했는데, 예배적인 요소로는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 ‘성경을 열심히 찾는 것’⁵⁷⁾, 그리고 ‘기도’⁵⁸⁾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건의 요소들이 그 당시 수많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와 확신을 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았다.⁵⁹⁾ 그래서 초기 감리교 예배의 모임에서 공적 기도와 설교와 성만찬은 필수적인 요소였다.⁶⁰⁾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예배 전통에 대해 상당한 도전을 하던 요소들이었다.

웨슬리가 그 당시 비난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새로운 운동이 가지고 있던 ‘열심주의적 특성’ 때문이었다.⁶¹⁾ 감리교 예배에는 성령의 내적 역사와 풍성한 외적 표적들이 나타났다.⁶²⁾ 그러나 이성주의가 지배하던 영국 기독교 상황에서, 신앙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관한 일로 다루는 웨슬리의 열심주의는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게도 영국의 국교회는 신도석을 지키는 신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또는 ‘열심주의자들’을 만들어 내는 웨슬리 운동을 관대히 보아줄 수 없었다. 웨슬리는 진정한 신앙의 열정과 소란한 행동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지만, 감리교 운동은 항상 떠들썩하고 활기찬 참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⁶³⁾

웨슬리의 찬송은 한편으로는 문화이면서 동시에 반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예배 문화는 공예배에서 회중찬송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⁶⁴⁾ 웨슬리는 찬송가가 다양한 공적 집회와 개인적 헌신을 돕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사실 감리교 운동의 모든

53) *Works of John Wesley*, vol. III, ed., Albert. C.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428-429.

54) 나형석, 『성찬으로의 초대』 (서울: KMC, 2004), 35.

55)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2.

56) *Works of John Wesley*, vol. I, 381.

57) 물론 ‘성경 공부’는 직접적인 예배 요소로써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써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임에 분명하다.

58) ‘기도’는 예배에서와 모임과 학습, 그리고 가정에서 하도록 권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자유로운 기도와 낭독하는 기도 모두 장려되었다. 웨슬리의 생각은 기도의 공식적인 형식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로 자유로운 기도로 보았다. 하지만 자유로운 기도가 단순히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준비된 것이었다.

59) 화이트, 『개신교 예배』, 263.

60) 웨슬리는 평신도가 인도하고 설교하는 전도예배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성직자가 참여하지 않은 예배 모임에서의 성찬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61) Ibid., 258-259.

62) Ibid., 261.

63) Ibid.

64) 웨슬리, 『웨슬리 찬송시선집』, 9.

모임은 그 당시 있었던 예배와 사회 문화에 대해 반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찬송은 이러한 모든 모임들, 즉 주일 예배, 설교집회, 밴드 미팅, 클래스 미팅, 애찬회, 철야, 성찬, 언약갱신, 장례식등 모든 모임에서 회원들과 불신자들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이미 지적했듯이 회중찬송은 그 당시 반문화적인 요소였지만 찬송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문화를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4. 믿음으로와 거룩한 생활의 통합-예배의 은혜와 인간적인 책임

웨슬리는 형식을 초월한 ‘믿음으로만’은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경건한 외양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그는 이사야 1장 21절을 본문으로 한 ‘수호되어야 할 참된 기독교’라는 설교⁶⁵⁾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것을 말하는데 있어서 즐거움이 없고 슬픈 마음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중에 경건의 모양(form)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⁶⁶⁾ 사실 경건의 모양은 진실한 신앙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무 짝에도 없는 쓸모없고 헛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의 부재”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⁶⁷⁾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⁶⁸⁾ 또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경건의 모양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적인 종교 없는 외적인 종교가 있을 수는 없지만, 외적인 종교가 없는 내적인 종교는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⁶⁹⁾

웨슬리의 이해에 있어서는 형식과 내용은 본질상 분리되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내용물이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이라는 형식도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웨슬리의 매력은 신학을 실제의 신앙생활과 체험에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이다.⁷⁰⁾ 그래서 그의 신학을 ‘살아있는 신학’(living theology)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만’(Sola Fidei)과 ‘거룩한 생활’(Holy Living)의 균형과 통합은 그의 성화론의 출발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톨릭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행으로써의 거룩한 삶’은 신학과 실천을 ‘도덕주의’로 빠지게 할 위험이 있었고, 이에 반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으로만’의 강조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과 ‘거룩한 생활’을 함께 아우르는 웨슬리의 독창적인 관점은 그를 비

65) Wesley, *Seermans on Several Occasions*, vol. 2, 584-93.

66) Ibid., 589.

67) Ibid.

68) Ibid.

69) Ibid.

70) 웨슬리에 대한 연구의 권위자인 루크 타이어맨(Luke Tyerman) 박사는 웨슬리의 삶을 분석하며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Luke Tyerman, *Life and Times of Rev. John Wesley, M. A.*, vol. 3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71).

판했던 사람들에게 웨슬리의 일관성 없음의 증거였다. 과연 어떻게 Sola Fidei를 설교하며 바로 동시에 그의 회심자들에게 완전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만’과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었다.

웨슬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였다. 이러한 경건의 모습은 주로 삶에서 적용되도록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에게 경건의 모습의 시작과 기준은 예배였다.⁷¹⁾ 따라서 형식과 내용을 본질상 분리되기 쉽지 않다는 웨슬리의 생각은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어쩌면 웨슬리가 교회의 건물을 벗어나서 전도할 수 있는 장소나 전도해야 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그의 확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예배는 한 순간의 경험만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도 그에게 중요하게 간주되어진 부분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웨슬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느 한 순간의 행위와 경험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에게 예배의 지향성은 내부로 뭉쳐지기보다 외부로 발산될 때 더 힘이 있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간주한 듯도 하다. 물론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배와 예배의 모양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의 생각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V. 나오는 말

웨슬리 스스로는 예배 전반적인 신학과 실천에 대해서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기준도 그의 삶과 설교 그리고 글들을 통하여 정리하고 해석해낸 결과일 뿐이다. 웨슬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였던 것이 이것뿐 일리는 없다. 다만 자료의 부재일뿐이다. 또한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접근을 해석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웨슬리가 이 글을 읽거나 이러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듣는다면 혹시 반론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부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답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대부분 거짓된 것들일 수 있다. 위의 내용도 도달해야만 하는 하나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조언들이 현재의 예배에 대해 하나 건강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방향을 세우는 데는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관점은 하나에 고착되거나 하나의 당파적인 특색만을

71) Ibid., 589-90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에 정리한 내용들이 꼭 청년예배에만 해당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예배든지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은 청년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귀 기울여야하는 것들임에는 분명하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성서와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웨슬리는 예배의 벽들을 깨기 위해 성서와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전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래서 사실 웨슬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서와 초대교회의 증언들에 귀를 기울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청년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문화는 꼭 배척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이 시대적인 요청이며 흐름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문화적인 그것들을 적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준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없다면 청년예배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거나 감정의 발산을 종교적인 체험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비판들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예배의 출발은 선교적 관심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오늘날 청년예배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에 대한 선교적 관점의 접근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선교적 관심은 변화에 관대하다. 뭔가 변해야 한다면 변해야 한다. 어떤 모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좀 더 세밀해져야 한다. 웨슬리는 우선 실용적 전통주의라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한 변화가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먼저 점검했다. 그리고 그 실용적 전통주의는 우리를 성서적이고 사도적인 관점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를 수용하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문화를 거스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청년예배에서 문화의 수용이 문화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신앙이 추구하는 것 사이에는 대개의 경우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문화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의 집약체이다. 웨슬리도 문화라는 그릇을 사용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그릇 속에는 반문화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배의 본질이란 측면이 그 당시 문화가 추구하던 것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제임스 화이트가 ‘반문화적’이란 용어를 ‘본질적’이란 말로 바꾸고 싶은 욕구도 있다. 문화의 그릇과 반문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표현이며 다분히 해석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청년들이 들어야 하는 불편한 이야기가 있다면 성만찬에 관한 것이다. 화이트는 성만찬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 웨슬리의 생각이 그 당시 반문화였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문화가 아니라 본질이다. 이상하게도 성서적이고 사도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성만찬을 본질의 카테고리에 넣곤 한다. 루터나 칼빈이 그랬고 웨슬리가 그랬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많은 예배학자들이 그렇게 한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교회 현장과 학교의 학문 사이

에 간극이 있다고 목회자들은 불편해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서와 사도전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의 성만찬에 관한 논의는 현장에서 그렇게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한 성찬을 통해서 받고 나누게 되는 예수의 삶과 피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예배에서 살아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인 기독교 예배는 거기에 정체성이 있다.

오늘날 예배에서 가장 큰 발전 가운데 하나는 예배의 개념이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발전이면서 도전이다. 예배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의 통합 그리고 세상으로의 파송은 예배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청년예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배자로 세상에 내보내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솔직히 이것을 잘 행하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문화적 적용’과 ‘예배의 본질’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적용에만 치우치면 예배의 본질은 잊혀 질 수 있고, 예배의 본질만 강조하다보면 시대를 읽는 것에 소홀해 질 수 있다. 본인은 웨슬리의 예배적 관점을 그 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그리고 청년예배의 건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도구로써 제안하며, 오늘날의 청년예배가 한국교회를 더욱 생동함 있게 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나아겔, 빌리암 지음. 박근원 옮김. 『그리스도교 예배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나형석.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성찬 감사기도』. 서울: 좋은땅, 2012.
- 『성찬으로의 초대』. 서울: KMC, 2004.
- 웨슬리, 존. 『웨슬리 찬송시선집』. 서울: KMC 출판국, 2010.
- , 찰스 웨슬리 지음. 나형석 옮김. 『웨슬리 형제의 성만찬 찬송』. 서울: KMC, 2004.
- 화이트, 제임스 지음. 김석한 옮김. 『개신교 예배』.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 김운용 옮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 한국 예배학회 2011 가을 학술모임 자료집.
- 한국 설교학회 제15차 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번영신학과 기독교 설교 자료집』.
- Baker, Frank. *Methodism and the Love-Feast*. London: Epworth Press, 1957.
- Bowmer, John C.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n Early Methodism*. Dacre Press, 1965.
- Bishop, John. *Methodist Worship in Relation to Free Church Worship*. London: Epworth Press, 1950.
- Church, Leslie. *The Early Methodist People*. London: Epworth Press, 1948.
- Fant, Clyde E. Jr. and William M. Pinson, Jr, *20 Centuries of Great Preaching: An Encyclopedia of Preaching*, vol. 3. Waco, Texas: Word Books, 1971.
- Tipp David. *The Renewal of the Covenant in the Methodist Tradition*. London: Epworth Press, 1969.
- Tyerman, Luke. *Life and Times of Rev. John Wesley, M. A.*, vol. 3.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871
- 『Wesley Letters I』,
- Wesley, Joh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vol. 2. London: Fisher, Son, & Co., n.d.
- White, James.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Worship*. Nashville: Abingdon Press, 2000.
- Works of John Wesley*. vol. I. ed. Albert. C.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Works of John Wesley*, vol. III. ed. Albert. C. Outl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발제2 서구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젊은이 예배의 방향성



- 박해정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사. 드류신학대학교 신학석사 및 철학박사(예배학 전공).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예배학). 만나교회 소속목사.

I. 포스트모던의 도래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960년을 정점으로 교회성장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 침체기를 경험하였으며, 1970년대를 시작으로 가파른 교인의 감소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교인감소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흐름이었던 히피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던 젊은 기독교세대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없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기성세대들은 안일하게 교회는 큰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가졌지만, 40년이 지난 오늘 미국 개신교회의 모습은 불과 지난 5년 사이에도 개신교 인구의 5%가 감소하는 심각한 교인 감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퓨포럼, Pew Forum on Religion and Public Life in 2012), 노년층이 중심이 되고 있는 교회의 노화현상은 미래의 교회 모습을 더욱 암울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들의 이러한 위기에 따른 현실적 대안으로 지난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통해 감독 직권에 의한 정회원 파송보장에 대한 “보장”부분을 삭제하였다. 연합감리교회의 정회원 목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파송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미국교회의 교인수와 재정적인 위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외형적 잣대이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의 성장요인과 쇠퇴하는 교회의 교인 감소 원인을 교단차원에서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장과 감소의 요인이 동일한 두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중심의 교회였다.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의 중심에는 영적인 리더로써의 목사가 있었으며, 설교사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드러냈다. 둘째는 역동적인 예배가 있었다. 그 예배가 전통적 형태의 예배이든지, 혹은 현대적 형태의 예배이든지, 그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따라서 교회의 역동성과 맞물려 있는 모습이었다(미연합감리교회 출판국 원달준 보고).

미연합감리교회는 예배의 강화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제자국에 예배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다양한 예배, 즉 절기에 따른 전통예배, 찬양과 경배 예배, 이머징 예배, 심지어 테제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배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예배로 판단하고, 기독교를 접하지 못하고 성장한 후 기독교인(Post-Christian, 그 어떤 교회의 영향도 받지 않고 태어나서 자랐고, 현재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던 문화와 가치에 매우 영향을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치, 도덕, 신념 그 어느 것도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이 미래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특정 교단의 노력으로 태어난 예배형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후기독교인들을 타깃으로 시작된 새로운 대안의 예배공동체가 21세기를 시작으로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이머징 예배로 스스로를 명명하며 심지어 기독교에 환멸을 느끼는 안티기독교인(Disillusioned Christian)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 하는 예배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포스트모던은 매우 익숙한 키워드이다. 한국교회가 이미 내부적으로 포스트모던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좀 더 숙고가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한국사회는 다분히 포스트모던 시대이다. 크라우치는 포스트모더니티의 특징을 대형의 쇼핑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포스트모던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의 대형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교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조금이라도 협소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도록 교인들을 길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 문화). 이는 마치 한국의 대형 제과점들의 동네의 제과점들을 흡수 통합하여 소비자들을 동일한 제과와 제빵에 익숙하게 만드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II. 젊은이들을 위한 대안적 예배 공동체-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숙제 가운데 가장 난제는 젊은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는 고맙게도 아직도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교회에 속한 청년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중소형교회의 젊은이 예배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조타수 없이 떠도는 외로운 한 척의 배와 같은 상황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성숙한 모임으로 성장시켜야 되는지 고민하며 답을 구하는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젊은이 예배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머징 예배를 소개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비록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대안으로써의 예배안을 제시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개체교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발표되며 연구된 서구의 이머징 예배이지만, 이를 보다 웨슬리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살펴보면, 한국 감리교 상황에서의 적용여부를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이머징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머징 예배를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이머징 교회, 혹은 이머징 예배 공동체는 그 모임의 의식적인 모습, 즉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모임의 형태를 이머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머징 예배는 기독교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와 그 신학적, 성서적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정체성을 찾고 있다. 전통적 예배의 정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히랍어 프로스퀴네오는 이머징 예배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어휘로써, 이는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여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과 찬양의 방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머징은 생활 양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예배의 특징은 예배모임을 통해서 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경배하며, 삶을 통하여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이러한 경험과 고백을 예배 공동체 속에서 일상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예배행위라 믿는다.

III. 이머징 예배의 구조 및 특징

이머징 예배의 특징은 아래의 몇 가지로 기술해 볼 수 있다(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7장). 첫째, 이머징 교회 예배는 관객형 예배에서 탈피한다. 구도자 예배, 그 중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구도자 예배의 특징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구도자(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초신자 및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독교 신앙을 세속의 문화적 틀을 사용하여 일차적으로 접하게 하는 관객형 예배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예배자들을 관객으로 만들며 이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머징은 이러한 구조에서 탈피하여 유기적 구조를 강조한다. 이는 일률적인 구조로 부터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전형적인 예배구조와는 상이하게 이들 공동체는 공연과 같이 짜놓은 틀 속에 있는 예배에서 탈피하여 가급적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다. 이들의 예배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일맥 하는 것으로 예배의 희랍어 어원인 리투르기아(리터지, liturgy, 예배-Work of people)로 이해 될 수 있다. 외형적인 특징들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찬양, 성경봉독, 간증, 침묵의 시간, 찬양, 설교, 영상, 그리고 침묵과 묵상의 시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예배자들은 예배실 주변에서 기도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기도문을 쓰기 위한 모임을 갖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예배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배의 직접적 참여를 독려 받는다.

예배자들을 단순한 관객형 시청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머징 예배 공동체는 오늘날 신세대들의 문화적 감성에 맞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는다. 기존 예배 공간의 제한적인 시각적 구조물이나 상징물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예술적 상징물이 등장한다. 예배당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전시 혹은 설치되어 있다. 예배당 내부의 조도도 대부분의 경우 많이 떨어져 있다. 예배의 엄숙함과 진지함을 표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량의 초를 밝히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둘째, 예배모임에 대한 다감각응용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다감각응용 예배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의 찬양은 예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찬양 사역자들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찬양팀의 위치를 예배당 공간 후미나 측면에 두는 것도 그와 같은 의도이다. 오히려 찬양 시간에는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거나 찬양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상을 보며 스스로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찬양의 장르도 다양해서 고대와 현시대적인 팝을 절충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단조롭지만 심오한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떼제 스타일의 찬트로부터 시작해서 현시대적인 CCM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머징 예배에서는 다양한 미술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예배실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이 전시되거나 설치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 더욱이 이들의 예배에서는 예배 중에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예배의 주제에 부합하는 예술 작품 작업을 한다. 고난주간의 경우 비록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려서 십자가에 붙여서 전시하며, 십자가 경배예배로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비록 채플이기에 이머징 예배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느질을 통해서 조각난 인형들을 만들었으며, 이 조각난 인형들을 예배자들이 함께 결합시켜서 하나의 커다란 여인상의 인형을 만들어서 예배 공동체가 함께 이 시대의 인간상에 대한 고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묵상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댄 김볼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기도처소에서 축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한 처소에 모래를 담은 그릇을 준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모래를 휘저으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가르침을 상기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모래의 비유는 하나님을 향한 메마르고 갈급한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소금주머니를 기도처소에 놔두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13에 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읽도록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세계지도 위에 있는 특별한 나라에 핀을 꽃을 수도 있다. 싱싱한 포도덩굴과 말라빠진 포도덩굴을 준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과 대조해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손을 씻을 수 있는 대야를 테이블 위에 준비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 받았는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오감을 활용하여 예배하게 되며, 보다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예배에 동참하도록 예배자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이머징 교회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맥라덴은 이머징 교회 예배의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설교자는 일종의 그룹 목장 리더이며, 학자이기보다는 현자이며, 강사이기보다는 시인이고, 예언자이며, 그리고 제사장이다.” 즉, 기성교회 설교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방식과 선포식의 설교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들려주는 친절한 전달자의 모습이 강하다. 유머와 웃음이 많은 그들의 설교 시간에는 예배자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들은 이 시대 젊은이들의 삶이 오늘의 말씀과 얼마나 깊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그들 삶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풀어서 설명하되 이야기하듯 설교한다. 이러한 설교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이머징 교회에서는 예배의 설교 시간에 기성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대화’를 시도한다. 설교가는 예배자의 규모에 상관없이 미리 계획해둔 것이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든지 예배자들에게 마이크를 돌리거나 공개적인 나눔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머징 교회의 설교 시간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설교가 하나의 단위(unit)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편의 긴 설교 대신에 찬양으로 회중과 찬양단과의 교창이 이루어지거나, 설교 중간에 공동의 기도를 낭송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이머징 교회 예배모임에서는 설교 중에 예배자들 중에 일부는 작업실로 이동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주제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넷째, 예전(liturgy), 고대의 규율, 기독교의 계절, 그리고 유대적인 뿌리의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웨버는 고대-미래교회의 모형을 실제 지역 교회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예배를 제시하였다. 예배의 내용은 초대교회 전통을 계승하지만, 그 형식은 현대의 문화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승화시킨 모임이 이머징 예배이다. 예배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교회력에 무게를 두는 이머징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림절기와 사순절기를 지키면서 다양한 주제의 예배를 기획하여 지킨다.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찬송’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여전히 현대적인 감각의 팝음악의 기독교 음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의 이머징예배에서는 찬송가를 부르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편곡을 통해서 박자를 새롭게 진행시키지만, 여전히 쉬운 멜로디와 풍부한 내용의 가사를 통해서 이머징 예배 공동체는 오랜 기독교 역사를 계승하는 모습도 발견된다.

이머징 교회 예배 모임의 전반에 얹혀 있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기도이다. 한국과 같은 통성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의 교회에서는 예배 중의 기도는 대부분 공동의 기도의 형식을 취하거나 나지막이 읊조리거나 침묵의 기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머징 예배에서는 위의 모든 형식의 기도를 강조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한다. 예배를 준비하는 중보 모임으로 시작해서 예배당 곳곳에 기도처를 마련하여 실제 예배 중에도 각자의 처소에서나 여러 곳의 기도처에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들의 이러한 기도의 훈련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예배에서 초대교회의 전통과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자면 이머징 예배에서 매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그리 어색한 장면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이머징 예배 모임들이 매주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이거나 수동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신비스러움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댄 김볼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찬식은 예배의 중심이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에서 성찬식이 너무 흔한 상식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떠오르는 신세대들 가운데는 주의 만찬이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성찬식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예배모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들의 성찬예식은 기성교회에서 행하는 성찬과는 달리 성찬예문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예식을 취하며, 그 공간의 구성에서도 차별화 된다. 댄 김볼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록한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개의 테이블을 붙이고 그 위에 아주 커다란 십자가 하나를 놓혀 놓은 적이 있었다. 전체 십자가 위에 촛불을 켜놓아 십자가의 형상이 빛나도록 했다. 빵과 포도주는 테이블 위에 있는 십자가 온 주위에 놓아두었다.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다.” 기성교회에서 성찬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의 성찬을 통해서 매우 색다른 경험을 하게될 것이다.

댄 김볼은 예배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어떤 본문과 주제를 가르쳐야 할지 공동체와 함께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둘째, 진행 과정에 스텝들을 포함하라. 셋째, 적어도 두 주 전에 가르칠 제목이나 주제를 결정하라. 넷째, 성경의 은유와 주제를 개발하라. 다섯째, 공동체에서 예배를 기획하라. 이 공동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예배를 기획하도록 하였다. 성스러운 공간담당 팀, 미술담당 팀, 찬양담당 팀, 기도담당 팀, 디지털 아트담당 팀, 시, 춤, 드라마, 비디오 담당팀, 기술담당 팀, 교육담당 팀.

비록 댄 김볼의 2004년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에서 시작된 빈티지 믿음 교회(Vintage Faith Church)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머징 교회와 그 예배를 설명하였지만, 댄 김볼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러한 대안적 예배운동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발을 들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한 고민과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목회자들에게 접합한 목회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머징 예배가 어떻게 한국 교회에서 자리매김 될 수 있으며, 넓게는 한국 개신교와 좁게는 한국 감리교 예배에 하나의 대안예배로 접목될 수 있을까?

IV. 적용을 위한 제안

우선 미국의 이머징 예배의 상황과 한국 감리교회의 목회적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머징 예배의 태동은 기성 교회에서 이머징 예배 공동체로 발전시킨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21세기에 들면서 이머징 교회와 예배 공동체를 독립적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머징 교회는 기본적으로 대형교회를 지양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도 기존의 예배당에서 탈피하여 젊은이들에게 근접성이 뛰어난 곳을 선택하며, 공격적인 모습의 선교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 가운데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건물을 팔고 오전에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시내의 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서구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한국의 그것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예배가 한국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 젊은이 예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에 필자는 문화적 그리고 목회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상이할 수 있는 이머징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개신교회가 수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목사 1인 중심 체제에서 팀 중심으로의 목회 중심의 이동이다. 대다수 오늘의 젊은이 예배 모습은 청년사역자에 의해서 준비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준비'는 대다수의 경우 설교와 예배를 위한 찬양곡 선정이 끝이 나면 예배 준비가 동시에 끝이 남을 의미한다. 젊은이 예배의 인원이 부족해서, 혹은 젊은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바쁜 관계로 청년사역자 혹은 몇몇의 임원들에 의해서 예배가 준비된다면, 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오늘의 예배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배를 가장 기초로 해서 모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스텝들을 구성하고, 이후에 훈련을 통하

여서 선택된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러한 사역 위에 그 모임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중국에는 사명을 선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머징은 사명의 기초 위에 세우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들에게는 가장 근본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철학, 신학적인 사고들을 묶어내고, 그를 통해서 리더십 공동체를 위한 훈련과 사역에 집중한다. 중국에 이러한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확립한다. 비록 소수의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과 역할을 제시한다면 역동적인 청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팀 중심의 목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전제되어야 한다. 댄 김볼은 확신하며 말한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이 예배 공동체 사역은 가능하다.”

둘째, 확립화된 예배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젊은이 예배 공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젊은이 예배는 협소한 공간, 혹은 인원수에 합당한 작은 모임을 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젊은이 예배에 대한 교회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고, 예배 공간을 젊은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구의 성장하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는 예배자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예배공동체에서는 어김없이 교회의 성장을 볼 수 있었다. 많은 경우 유치부로 시작된 교회학교의 경우 부서별 예배 공간이 교회 내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예배공간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 현실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 본당을 청년들을 위한 예배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줘야 될 것이다. 미국의 한 침례교의 경우 오전에는 20여명의 노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지만, 저녁에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목사에 의해서 평균연령 25세의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석의 예배당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 이들이 예배공간을 청년들이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주 설치와 해체를 수없이 반복하겠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로 인해서 젊은 예배자들은 매주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 성례전에 대한 예술적 이해의 확대 및 시행이다. 이머징 예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상은 성례전에 대한 색다른 이해와 시행이다. 이들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의 근간에 성례전적 이해가 있었기에 이머징은 성례전을 접하는 이해와 관점이 오늘의 개신교회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머징 예배는 초대교회의 성례전, 세례와 성찬의 가장 핵심이었던 공동체성을 취하였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공동체성의 회복과 강조를 위해서 매주 성찬예식을 시행하고 있다.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에 사는 서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연대성을 갖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의 특성이 이 성찬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이들은 성찬을 통해서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들의 성찬은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지체이지만, 통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의 정서에 맞는 성례전을 행함으로 공동체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성찬과 세례에는 예술적인 영역이 포괄적으로 적용된 감각 있는 예술적 표현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보다 시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과 같이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예문을 교독의 형식으로 읽어가며 집례를 하게 된다는 이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거리감을 더욱 가져다 줄 것이다. 간소한 형식으로 하지만, 집례자가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은 대화식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이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서 수찬을 할 경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파스칼의 신비를 깊이 체험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성찬상은 다양하게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방법론적인 것은 예배를 위한 모임을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줘야 된다.

넷째, 예배자들이 예배의 순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미 앞의 글을 통해서 필자는 이머징 예배에서 회중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함을 설명하였다. 간혹 듣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예배의 한 부분을 맡겼을 경우 부담스러워하며 아예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배가 주는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문제로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V. 나가는 말-웨슬리안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머징

비현실적인 상상이지만, 만약 오늘의 우리 젊은이 예배를 존 웨슬리가 담임자로 와서 사역한다면 어떻게 이끌어갈까? 영국 국교회의 사제로 평생을 사역하였으며,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인 공문도(Book of Common Prayer)를 너무나 좋아해서 미국교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이를 번역하고 일부 수정하여 “주일예배서(Sunday Service of the Methodists in North America)”라 명명하여 미국 감리교회의 예배지침으로 전해주었던 지극히 전통주의자 존 웨슬리가 21세기 한국 교회에 돌아온다면 어떤 청년사역을 감당할까? 이머징 교회와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하는 서구의 목회자들처럼 현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이커, 예컨대 디젤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지미추를 신은 외형적인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시도할까? 분명한 것은 그의 스타일이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본인의 스타일이 젊은이들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붙들고 이미 떠나간 젊은이들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라면 웨슬리는 스타일을 젊은이를 위한 스타일로 변할 것이다. 웨슬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교부신학과 초대교회의 예배에 관심을 가졌기에, 18세기 영국사회의 큰 세력이었던 교회의 권위에 반하는 목회적 접근을 초대교회의 영성과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였다.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능력과 체험이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영국교회의 회생을 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생겨나면서 영국사회는 경제

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사회상 속에서 교회를 통한 기독교인으로써의 정체성과 신앙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었기에 웨슬리는 탄광촌, 공장, 그리고 들판으로 찾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였다. 웨슬리는 찬송가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 운동을 일으켰고, 형식적으로 흘러버린 성례전주의적 성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온전한 수단으로써의 성찬을 가르쳤다. 그가 주도한 예배운동이 영국교회의 예배와 큰 틀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크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성화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영국 사회를 변혁시킬 것을 믿고 행하였던 자였다. 웨슬리는 18세기 판 이머징을 시작한 예배개혁가였다.

21세기의 웨슬리의 후예라고 스스로 칭하는 감리교의 목회자라면 오늘의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머징 예배를 대안으로 소개하면서 달았던 전제가 하나의 모델로써의 이머징이 아닌 접근 방식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머징을 소개하였다.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또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이머징이 한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소망한다.

'감리교회 새예배서에 의한 젊은이 예배'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예배와 문화연구소에서 매학기 시행하고 있는 예배시연이 오는 11월 29일 감신대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감리교 예배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새예배서에 근거해서 젊은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젊은이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에 또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관: 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와 문화연구소
- 일시: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과 3층 소예배실
- 주제: 복음 -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 주제 본문: 전도서 11:9-10
- 문의: 황준영 전도사 (010-7272-4336)

발제3 목회적 관점에서의 젊은이 예배 평가



- 나형석 교수 : 감리교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M.Th.), Candler School of Theology (M.Div.), Liturgical Studies, Drew University (Ph.D.), 서울연회 은평교회 소속,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예배와 설교학).

세미나 개최 취지문에 따르면 젊은이 예배의 네 가지 키워드는 축제성, 회중참여, 매체의 다양성, 구체성 (현실성) 이다. 젊은이 예배는 축제적이고, 회중참여적이며, 다양한 매체의 사용을 격려하고, 젊은이의 현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본고의 목적은 젊은이 예배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 네 가지 원리를 목회적 관점에서 재서술 해 본 후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역으로 현재 젊은이 예배의 실천을 조명해 봄으로써 목회자들이 젊은이 예배의 개선 혹은 발전을 위해 창조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첫째, 목회 특히 안수목회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보려한다. 목회적 관점 혹은 목회적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의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다. 둘째, 목회적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셋째, 목회적 관점에서 젊은이 예배의 네 가지 원리들을 재서술해 보겠으며 재정의된 원리들을 젊은이 예배의 실천에 가져다 대 봄으로써 어떤 관련 논의 주제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수목회의 과제

웨슬리에게 안수받은 목사의 목회적 과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Ministrial Order, Church)에서 사제직과 예언자직 (구약) 그리고 사제직과 복음선포자의 직 신약) 을 구별한다. 성례를 통해 회중을 섬기는 일은 사제직에, 증거를 통해 세상을 깨우고 주님께 초대하는 과제는 복음선포자의 직에 각기 속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웨슬리의 설교 내용은 메도디스트 평신도 설교자들의 지속적인 성례집례권 주장과 그 끝에 이어진 교회 분열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웨슬리의 주장은 분명하다. 성례는 안수받은 목사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례로써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제로서 안수 받은 목사의 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메도디스트 운동 내 웨슬리나 평신도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각성하고 회개한 자들을 모두 지역 국교회의 성례로 보냈다. 당대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웨슬리의 회중과 평신도 설교자들 그리고 저들에 의해 회개한 소사이어티 멤버들이 국교회 사제나 저들이 집례하는 성찬 참여를 극도로 혐오하는 상황 속에서 따라서 국교회 사제와 관계없이 감리교 소사이어티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성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팽배해지던 가운데서도 웨슬리는 결코 성례권을 평신도 설

교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과 성례는 안수받은 목사의 목회적 과제라 보았기 때문이다.

감리교 목사 안수 예문 역시 안수 목회의 과제를 말씀과 성찬을 통한 교회 섬김으로 규정하고 있다.『기독교대한감리회새예배서』(2002)에 따르면 감독과 안수받음이 사이의 문답에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묻도록 되어있다: “여러분은 성심으로 그리스도의 도리를 가르치고, 성례를 베풀며, 그의 교훈을 항상 준행하겠습니까?” 안수받을 자들은 대답한다: “예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예배서 290). 감독은 안수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당신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 영으로써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새예배서 292). 감독은 안수가 끝난 후 안수받은 자에게 상징물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여 교회를 잘 섬기기 바랍니다” (새예배서 293).

목회적 관점, 목회적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를 그리스도의 몸된 회중을 섬기는 목회의 근본 구조와 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선교, 디아코니아, 교육, 교제, 돌봄, 행정 등 모든 목회적 사역의 기능이나 과제를 말씀과 성례의 근본 목회 구조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피차에 네트워킹 시킨다는 말이다.

2. 목회적 관점에서의 예배 평가기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회의 본질과 과제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목회 이해에서 볼 때 어떤 예배를 일컬어 참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참된 예배의 평가기준은 무엇일까?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참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과연 그 예배가 말씀과 성례를 근본 구조와 자리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말씀과 성례에 담긴 예배라면 이는 참예배라는 것이다.

말씀과 성례를 근본 구조 혹은 자리로 하는 예배란 무슨 뜻인가?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예를 갖추어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다.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사건에 대한 응답이다. 예배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삼위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계시)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응답이다. 따라서 새예배서는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새예배서. 2.2). 예배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취하신 행위가 우리 안에 일으킨 충격에 대한 격한 반응이다. 예배란 메아리이며 파동이다.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포효하겠는가? 받은 것이 없고야 어찌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제 머리칼로 잘 닦아드렸겠는가? 그물 가득 고기의 무게 그 끝자락에서 전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와 요청을 느낀 것이 없고서야 어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라 고백했겠는가? 무엇에 대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응답을 드리는가?

만일 예배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실제적 응답이라면 세상은 어디에서 그분의 사역에 노출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인가? 떠돌이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들의 증거를 통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약속, 행위 앞으로 초대받는다. 안수받은 목사가 하는 일은 주께서 은혜스러운 약속과 함께 명령하신 세례의 물과 그분의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 곳에 나와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 세례의 물과 식탁으로 초대될 때 어떤 약속들이 증거되는가? 증거자로서 목사는 인간의 죄를 밝히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 것 같이 거룩한 (사랑) 자만이 열납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증거한다. 누구도 죄로 인해 부정하지만 그러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되신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면,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다면, 이런 은총의 계약 안에서 우리가 능히 영생, 실낙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품에 열납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을 증거한다. 세례의 물로의 초대이다. 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사역이 증거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다가올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고향과 형제를 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다. 애굽을 떠난다. 배와 그물과 아비집을 떠난다. 목사는 저들을 위해 세례의 물과 기름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그 물가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신다. 그분 그 곳에서 세상이 저들에게 입혀주었던 모든 의복과 장신구들을 겹겹이 벗겨주신다. 이제껏 자신들의 모태였던 마귀의 세계를 감히 마주 대하여 침 뱉고 소리 질러 조롱할 수 있도록 맑은 영과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새로운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약속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들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신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저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만드사 저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 출산하신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활시키신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 즉 당신의 이미지로 다시 빚으신다, 세례의 물가에서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아버지와의 연합과 평화에 들어간다. 이제 저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생, 실낙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시험과 유혹 그리고 저항과 폭력으로 가득차 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현재 투쟁 중이다 (church militant). 신비한 별이 이제 태어난 수세자 저 그리스도의 몸 위로 높이 뜰 때마다, 갓 태어난 수세자 저 교회가 말먹이통에 놓여질 때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칠 때 마다, 성문은 열리고 헤롯의 군대가 이 거룩한 영아들, 수세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달려든다.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물 밖으로 나오고 그의 영이 누구의 것인지 알려지는 순간마다 다시 마귀는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 시험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소동, 논쟁, 폭력이 뒤따른다.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상에 머리 둘 곳은 없다. 있다면 세상법정의 비난, 군중의 무심과 조롱, 십자가 위 허공, 그리고 무덤뿐이다. 이런 전투 속에서 교회는 때로 눈과 팔을 잃고, 큰 충격에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다. 강도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며 누워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다. 눈 잃은 그리스도인, 팔 잃는 그리스도인, 장애를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있는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이 것이 전투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들의 모습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에 의해 출산되고 빚어진 그리스도의 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세례를 통해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 겪게 되는 세례적 삶의 현실상이다. 세례와 함께 교회는 영적 전선의 진흙 참호 속으로 던져진다.

그럼에도 세례인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모든 고난과 인내 속에서 사랑을 키우고 거룩으로 자신을 온전케 해야 한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며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받은 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세례적 삶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투쟁 중에 있는 교회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신다. 목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주님의 상을 준비한다. 그분이 이 상에서 저들을 만나실 것이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소망 주실 것이라 증거한다. 그렇게 세례적 삶을 사는 자들을 이 상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이 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투쟁 중에 있는 교회를 섬기신다. 그분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자에게 음료를 주신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몸이니 먹으라!” “너희를 위해 흘린 새언약의 피라!” 저들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야전병동으로 데리고 가신다. 당신의 흰옷을 우리 위에 덧입혀 추위를 이기게 하신다. 떡과 잔을 들어 당신 나라를 기억하라 소망 주신다. 세상을 이기신 당신의 상처난 몸을 주신다. 세상을 이기고 세례적 삶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를 살아주실 때만 가능하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길 밖에 없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은 이제 더욱 이 주님의 식탁에서 견고하게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된다. 접붙여진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놓으신 의와 거룩의 은총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의의 일치를 통해 주어지는 이런 은총의 힘으로 세상에서 건디고 승리하면서 더욱 거룩해져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만큼이나 완전해져 간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온전해질수록 저들에 대한 저항은 더욱 격렬해지고 그럼에도 이 투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신 모든 길을 걸어 종국에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죽음의 무덤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 승천한다.

목회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 했다. 목사는 세례의 물과 불을 준비한다. 그리고 주께서 그 곳에서 하실 일을 증거하고 그 곳으로 세상을 초대한다. 주께서 그 곳에서 죄인들을 씻으시고 새롭게 출산하신다. 목사는 약속 있는 명령을 따라 주의 상을 준비한다. 그리고 세례 받고 의의 전쟁에 돌입한 자들을 이 상으로 초대한다. 주께서 친히 이 상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치유하고 위로하신다.

예배가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구원의 약속 그리고 행위에 (계시)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예배는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것이 실제 저들의 세례적 삶, 그리스도인의 쟁투와 관련된 것일 때만 참이고 진실일 수 있다. 세례적 삶이라는 교회의 투쟁과 그 전쟁터에 차려진 비상식량으로써의 성찬 그리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가 승리하셨으며 그분의 힘으로 우리도 승리해 가고 있다는 성령의 증거 속에서 올려지는 감사와 찬양만이 참이라는 말이다. 홍해의 물이 하나로 합해지고 따라오던 병거와 애굽의 군인들이 납처럼 바다로 가라앉았다. 이 광경을 지켜 보던 마르다가 소고치며 소리 내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일을 실제로 세례적 삶 속에서 보는가? 반응을 일으킬만한 어떤 일인가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적 관점에서 참된 예배의 평가 기준이 있다면 이는 저들의 예배 즉 감사와 찬양의 응답이 실로 세례적 삶, 성찬, 증거라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가 여부일 것이다.

3.목회적 관점에서의 젊은이예배 원리 재서술과 그것에 의한 젊은이예배 실천 평가

젊은이 예배의 원리란 무엇인가? 젊은이 예배의 본질, 특성, 성격을 결정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젊은이 예배 관련 자료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네 가지 정도이다 : 축제성, 회중참여, 다중매체, 젊은이 경험에의 적절성.이 원리에 따르면 그 것이 젊은이 예배라면 그것은 축제적이고, 회중참여적이고, 다중매체적이고, 젊은이의 경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원리는 모든 예배에 공통적이다. 젊은이 예배라 하더라도 예배의 공통적 특성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기 때문이리라.

먼저 목회적 관점에서 즉 말씀과 성례의 관점에서 이 네 가지 특성 혹은 원리의 내용을 밝힌 후 그렇게 재서술된 원리에 비추어 현 젊은이 예배의 실천을 조명하여 논의점들을 끌어내도록 하겠다.

A. 축제성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크신 손과 권능으로 이사를 행하셨다. 세례의 물과 기름을 통해 우리를 정하게 씻으시고 아들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키고 출산하셨다. 그리고 거룩한 식탁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아들의 몸과 영에 날로 연합해 들게 하셨다. 그러나 세례의 물과 성찬을 통해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투쟁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된다.

물과 불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아버지와 연

합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그 섬김을 받은 자에게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일으킨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섬김 받고 있는 회중들에게 응답으로서의 예배에서 감사와 기쁨 즉 축제성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축제성은 복음적 예배의 신학적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감사와 기쁨은 이 세상에서 투쟁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이다. 밀과 가라지처럼 그의 찬양은 탄식과 함께 있고 기쁨은 유혹과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이웃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며 헤롯의 군대가 이갓 태어난 어린 그리스도, 수세자를 살해하기 위해 달려든다. 수세자 그리스도의 몸은 결국 세상의 재판정을 거쳐 십자가와 무덤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이다. 저들에게 감사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직 욕처럼 재와 기왓장 속의 감사이며,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약탈족의 습격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 중에서의 감사이다. 차라리 저를 죽이소서 말했던 엘리야처럼 두려움의 동굴 속에서의 감사이다. 재판과 비난 그리고 십자가와 무덤 속에서의 감사와 찬양이다. 따라서 이 복음적 축제성은 투쟁하는 교회라는 세례적 삶의 특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기쁨이나 환희는 아니다.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시련의 상처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 가운데 산다. 성폭행 당한자의 눈물과 분노가 뒷골목마다 가득 차 있고 형제 살인의 비정함이 거대한 도시의 빌딩숲을 밝힌다. 이유 없는 폭력에 상처받고 가진 것 없어 이 사회의 변두리로 쫓겨 가 사라져가는 자들의 스산함이 도시의 회색빛 속에 숨겨져 있다. 역사는 발전이 없고 진리는 빅뱅의 끝에서 셀 수 없는 조각으로 어둠 속에 묻힌다. 부정한 세계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도 우리는 감히 스랍과 함께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보고 찬양한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땅과 하늘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무심한 군중, 도망간 제자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자신을 버리신듯한 아버지의 침묵, 십자가에 걸려 우리는 오히려 머리되신 분과 함께 승리를 선언한다 :” 다 이루었다. “더러움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룩을 찬양하며 죽음 가운데 동트는 생명을 보며 그런 중에도 감사와 승리의 확신을 아버지께 올린다. 이것이 이 땅에서 쟁투하는 교회의 기쁨의 모습, 경축하는 방식, 축제성 아닌가?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응답의 축제성 아닌가? 아직 부활은 십자가 위에 걸려있지 않은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몸은 아직은 대림절의 종말론적 기다림, 마라나타를 외치는 간구함 속에 있지 않은가?

젊은이 예배에서의 축제성은 무엇인가? 저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세례적 삶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주심에 대한 감사인가 혹은 단지 음악적 파동이라는 물성이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인가? 단지 멜로디, 전기기타의 음색과 볼륨, 드럼의 비트,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찬양팀의 개인적 그러나 공개적 헌신의 열정이 일으키는 일시적 감정적 응답인가? 실체가 있는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의 학습된 반응인가? 이 축제성의 출처가 세례적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승리의 역설적 기쁨인가? 과연 길 떠난 자들, 전투 중에 있는 자들의 아픔 중의 기쁨인가?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가 감정적 일시적 비현실적인 것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세례적 삶에로의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예배 순서와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이 감사의 응답에 우선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뒤적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복을 세어주고 증거 하지 않는다면 어찌 회중의 마음에 진실된 감사와 찬양이 있겠는가? 그러나 대부분 현재 찬양 섹션이 설교 앞에 있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라 본다. 오히려 설교 전에는 자신의 세례적 삶에서의 투쟁, 죄와의 싸움, 배고픔, 피곤함의 탄식과 요구가 논리적이라고 본다. 세례적 삶을 살지 않고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증거 되지 않고 따라서 내 마음에 감사의 동기나 근거도 없는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강요하는 것은 율법적이라 본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시며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큰소리와 특정 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 율법적이며 아무리 외관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듯해도 복음적 예배 즉 그리스도교 예배가 아니라고 본다.

B. 회중참여

삼위 하나님께서 목사가 준비한 세례의 물과 식탁을 통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왕직, 제사장직, 예언자직)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특히 예배와 관련하여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을 위해 간구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구약과 같이 회중을 대신하여 여호와 앞에 서는 제사장은 이제 필요없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사제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직접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에 대한 기도, 찬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사장직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며 복음의 약속 내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혹은 회중의 예배참여는 당연하다. 단지 참관자가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주체로서 말이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찬양과 감사를 대체할 수 없다. 어떤 성직계급도 개인도 말이다. 루터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세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제라고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만인이 사제라는 말이다 (만인사제직). 종교개혁이 응답으로서의 모든 예배행위를 회중에게 돌린 신학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언어를 회중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며 모든 찬양의 권리를 회중에게 돌린 것은 (회중찬양) 저들이 진정 찬양의 주체 즉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이었다. 예배 즉 응답에의 회중참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의 물과 식탁에서 제공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가능케 하신 복음적 사건이며 신분이다.

젊은이 예배와 관련하여 논의될 주제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 찬양팀은 젊은이 예배가 배

척하려 했던 구약적 이미지의 대리적 사제로서의 목사의 권위와 목사의 예배 내 중심적 기능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찬양의 회중성을 퇴조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찬양팀이 제단 혹은 십자가와 회중 사이에 자리를 잡아 시각적으로 자신들의 대리적 사제의 신분을 표현하고 회중들의 하나님과의 직접적 대면의 공간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한다. 찬양팀의 마이크 독점과 저들의 압도적 목소리는 회중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옆 사람 소리 뿐 아니라 제 소리도 못 듣게 만든다. 세례의 물과 성찬의 음식으로 치유해 주신 자들을 다시 귀머거리와 병어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찬양팀이 이제 회중들의 음악적 대리자 (vicar)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개혁자들이 찬양의 주체인 회중에게 돌려준 찬양의 직을 다시 소수 엘리트 헌신자들 즉 음악적 사제들에게 되돌려준 것은 아닌가? 회중들은 찬양의 주체가 아니라 때로 엘리트 찬양팀의 종교적 엔터테인먼트와 헌신의 소비자, 관객 혹은 팬이 됨으로써 예배에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찬양팀의 위치가 제단과 회중 사이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것은 마치 밀알들의 집합체와 성찬의 떡이 다르듯 신학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부를 때 이는 교회의 소리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는 소리이다. 하늘에 열납될만한 소리이다. 회중찬송은 서로의 다른 소리를 들어가며 함께 공동으로 창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싸인이다. 찬양팀은 이런 교회의 소리를 함께 만들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센스를 길러주고 훈련시켜야 할 과제를 지닌다. 회중찬양을 돕는자로서의 과제인식과 자의식이 찬양팀에게 필요한 듯하다.

C. 다양한 매체

세례의 물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써 삼위 하나님은 회중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례의 물 깊이 나만처럼 일곱 번 담그사 저들의 문둥병을 치유하신다. 저들은 이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감각을 가진 채 물에서 일어난다. 저들의 오감이 열리고 이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대하게 된다. 새로운 감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다른 풍광을 보게 된다. 그는 피조물, 역사, 정치, 사회적 사건들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을 보고, 읽고, 듣고, 맛본다. 예언자들처럼 먼저 울고 먼저 웃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의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느끼게 된다. 그분이 물로 우리의 감각을 정화시켜 주심으로써 말이다.

세례의 물 그리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써 삼위 하나님은 회중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혹은 재창조하신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성육론에 잘 표현되어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그분의 몸은 감히 여호와와 은혜와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의 거처 혹은 매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버지를 보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그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하셨는데 그것들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혹은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후 타락하여 그 분 영광의 매체로 기능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몸, 피조세계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본질이 회복된 모양이다.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일치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 들면서 우리들의 육신은 그 모든 차원에서 (광물, 식물성, 동물성,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매개하고 품는 성매가 된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해진 자들에게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서의 세상의 모든 차원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매체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범사에 감사하겠는가? 범사가 아버지의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는 매체가 되지 않은 이상 말이다.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 세례와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시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육적 차원들로 하나님 영광의 성매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에게 이제 만물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매체가 된다.

젊은이 예배는 다양한 매체의 예배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설교와 찬양을 위해 활력 있는 예배를 위해 시각적 매체, 제스처, 색깔, 음악적 요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요소들은 모두 회중들의 예배참여와 자기표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경외를 바치는 응답이라면 일상의 모든 사안들 안에서 그런 응답을 불러일으키는바 삼위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을 분별하고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영적 감각의 회복은 더 근원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회적 차원에서 질문은 이렇다. 목회적 관심은 표현을 위한 매체 도입이 아니라 그에 우선해 예배를 가능케 해 주는바 일상에서 그분을 찾고 보는 감의 회복에 있다. 그런 감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을 통해 가능한데 젊은이 예배는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매체에 앞서 감사와 찬양을 일으키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분별할 수 있는 감의 회복을 위해 세례와 성찬 도입 문제를 더욱 심각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젊은이 예배의 매체 사용을 보면 소위 뜨거운 매체 사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감정을 끌어내 분출시키고 소비시키는데 유익한 매체이다. 일명 차가운 매체 (예문이나 제의)는 그런 능력에서는 뒤지나 지속적인 예문교육을 전제로 할 때 공동체 형성과 유지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두 매체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체 사용 폭에 있어서도 편향적인 측면이 있다. 음악 악기나 장르에서 편식이 심하며 영상자료의 경우도 글이나 초보적 그림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각적 매체에는 그림이나 설치물의 경우도 있는데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간이나 색도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지 종류의 문제 뿐 아니라 매체들이 과연 그리스도교의 종교적 역설을 표현하는데 그 스타일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 것이다.

D. 젊은이 경험에 대한 적절성

세례의 물과 식탁을 통해 삼위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 주었던 모든 구별의 옷들을 벗기신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자,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옷 말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라는 흰옷을 입히신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만드신다. 세례는 우리를 모든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안에서 교제와 연합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적게는 지역교회 넓게는 민족, 피부색깔, 언어, 정치사회적 역사, 지리, 문화적 차별성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일치된 (가톨릭) 교회를 뜻한다. 이처럼 교회는 각개의 경험적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혹과 시험 중에 있는 이 땅의 분투하는 교회 (church militant)와 하늘의 승리한 교회 (church triumphant)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땅의 성도와 하늘의 성도는 교제한다. 피차의 타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저들 안에 교제와 연합이 가능하다는 극단적 경우를 성육교리에서 보게 된다. 성육교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 아닌가?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써 신비한 교제와 친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성육의 고백이 다름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구원의 신비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세례의 물과 식탁에서 이루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킴으로써 말이다. 만일 개별적 경험들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연합의 징조가 어느 다양한 배경의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저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싸인이며 저들 안에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표이며 저들이 사랑과 살림으로서의 구원을 현재 맛보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개별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교제와 사귄에 이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과제이며 모든 교회가 맛보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종말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전 우주,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간 교제와 화해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분의 구원사역의 목적은 이런 우주적 교제이다. 만일 연령 사이에 그리고 각종 개별 경험들 사이에 상호 교제가 없다면, 그런 교제를 우리가 받을 기적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면 대체 이 감사와 찬양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감사와 찬양인가? 그분이 이리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주지도 않은 것으로 인해 저들이 내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도다. 내가 위해서 죽은 바로 그것을 (개별적인 것들의 교제) 위해서는 저들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도다. 내가 그것을 위해 저들을 씻어주고 내 몸을 내어 주어 먹었는데 저들이 이런 나의 섬김의 열매인 사랑, 화해, 교제를 맺지 않고 그것을 즐기지도 않고, 그것을 제 영혼의 구원의 실체로 여기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 놀라거나 감사하지도 않으니 이 자리에 저들이 모여 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적 관점에서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과제와 관련하여 젊은이 예배에 대하여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만일 세례의 물과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피조세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인간 포함) 사이의 교제와 화해라면 그리고 이런 복음적 약속의 성취 즉 친교의 기적에 대해서만 놀라움과 경외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허락되었고 열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젊은이 예배는 젊은이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개별성과 함께 다른 연령층의 경험과의 어떤 교제나 어떤 화해를 지금 경축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현재 젊은이 예배 혹은 젊은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이 개체성에 근거한 예배가 타자와의 교제와 친교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과제, 교제를 감사와 찬양이라는 예배의 동기로 삼아야 할 예배의 본질과 과제 앞에서 자신의 예배목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배는 특정 연령, 정치 성향, 교육배경, 취미, 문화생활, 경제적 집단의 발산적 자기표현 그리고 자기미화와 과시를 위한 유사종교적 매스 게임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각 그룹들의 경험적 배타성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교제와 친교가 가능한가? 그런 사랑의 교제와 친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가능한가? 그리스도인들의 친교와 교제란 세례적 삶의 도상, 분투하는 교회로서의 교제와 친교이지 동호회의 그것은 아니다. 1.4 후퇴 때 경부선 철길이나 1번 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피난 가던 행렬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저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슷한 지형과 장애물들을 거치며 부산까지 내려갔다. 노인이나 아이나 청년이 한 식구로서 함께 저항을 이겨내며 걸었다. 차가운 밥 한 덩이를 나누며 감사했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했고 그럴 즈음엔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있다는 상호 신뢰감이 이 얼음밥을 따끈하게 해 주었다. 돌베게 베고 서로의 몸으로 체온을 나누며 개별적 타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온기로 인해 서로에게서 평화와 안전을 느꼈다. 죽음과 생명, 배고픔과 배부름, 두려움과 평안은 나이를 따라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근원적인 공동경험 속에서 저들은 모든 개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며 친교할 수 있었다. 아니 그런 삶을 통해 교제와 친교가 저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임을 깨달아가게 되었다. 교제와 친교란 세례적 삶, 교회의 공동 투쟁의 자리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과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의미 있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만일 저들이 영적 전투의 한 전선에서 교회로서의 공동의 목표와 투쟁에 참여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위한 영적 전우애를 느끼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면서 피차 생존과 승리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런 교제가 저들의 하루하루 삶에 큰 기쁨과 힘이 됨을 느낀다면, 그리고 이런 교제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복음의 실체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이 교제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어진다면, 그제야 비로소 젊은이들만 별도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든 젊은이 예배는 탄탄한 예배 신학적 근거와 내용을 갖추게 될 것이다.

2012년 감리교 청년·청소년 예배포럼 자료집

펴낸날 : 2012년 11월 12일

엮은이 : 정현범 02)399-4371

홈페이지: <http://www.kmcedu.or.kr>

이메일 : kmcedu@chol.com